

한라반 학습 계획

일시 : 2018년 10월 20일

교사 : 김은아

- 목표 :
1. <양초 도깨비>를 읽고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2. 부사, 피동, 강조, 완료, 순차 에 관련된 문법을 이해할 수 있다.
 3. 조선에 관련된 읽기 자료를 읽고 이해할 수 있다.
 4. 8급 한자의 뜻을 알고 읽을 수 있다,
 5. 관용어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교재 : 국어6-2 나, 초등한자1, 살아있는 한국어 관용어, 100대 민족문화상징자료, TOPIK중급

교시	수업내용
1교시 9:30-10:20	숙제 확인 및 쪽지시험(한자,관용어, 읽기자료)
2교시 10:20-11:20	<양초 도깨비> 읽고 이해하기
점심 11:20-11:40	
3교시 11:40-12:00	문법 수업(부사, 피동, 강조, 완료, 순차)
4교시 12:00-12:40	준바 수업

숙제 (다음 주에 쪽지시험 봅니다)

1. 한자
2. 관용어
3. 읽기 자료(조선 관련)
4. 어휘
- 5.

양초 도깨비 <공부할 어휘>

상투쟁이: 상투를 튼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

서방: 벼슬이 없는 사람의 성 뒤에 붙여 이르는 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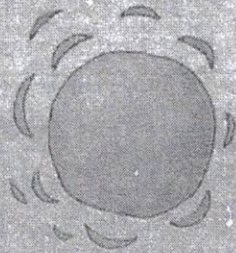
애초 : 맨 처음. 예문) 그 일은 애초부터 불가능한 것이었다.

잔말: 쓸데없이 자질구레하게 늘어놓는 말.

편잔: 맞대어 놓고 언짢게 꾸짖거나 비꼬아 꾸짖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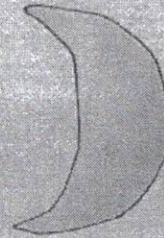
日

날 / 해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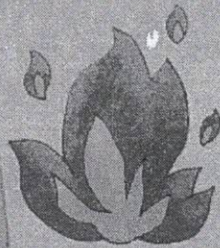
月

달 월



火

불 화



水

물 수



생각은 통통!
한자는 쓱쓱!



서로를 멀리하는 한자예요.

火



水

불은 물을 싫어해요.

日



月

해와 달은 함께 일하지 않아요.
해는 낮에, 달은 밤에 일하지요.

木



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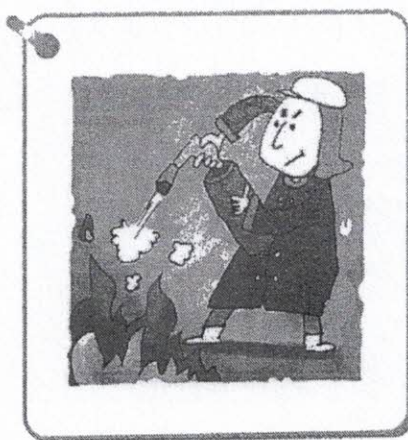
쇠가 나무를 자르기 때문에 나무는 쇠를 무시워해요.



날기 예보에서 내일은 비가 온다고 합니다.



월요일에는 애국 조회를 합니다.



불이 나면 소화기로 물을 끕니다.



날이 너무 더워서 냉수를 마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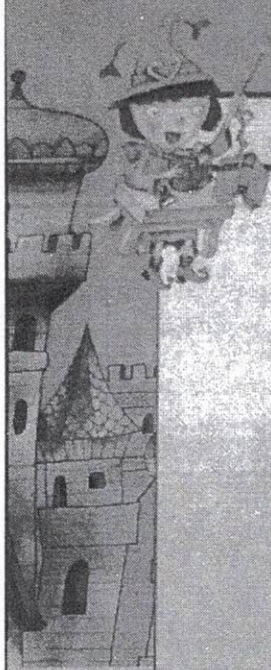
순서를 알아봅시다

日

月

火

水



대단원 마무리

1. 다음 그림과 관련 있는 한자는 무엇일까요? **보기**에서 골라 () 안에 써 봅시다.

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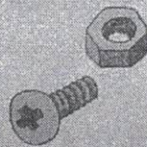
火 木 月 土 水 日 金 山

(1)



()

(2)



()

(3)



()

(4)



()

(5)



()

(6)



()

2. 다음 **보기**와 같이, 한자의 뜻과 음을 써 봅시다.

보기

月 ⇨ 달 월

(1)

金

⇨ ()

(2)

土

⇨ ()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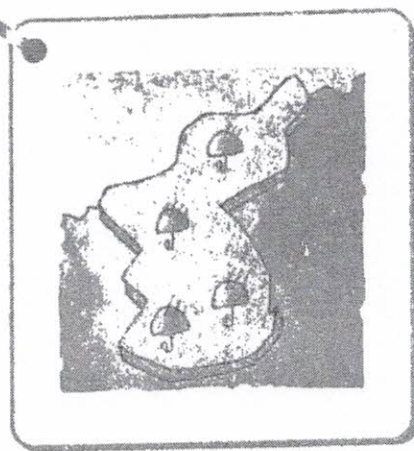
弟

⇨ ()

(4)

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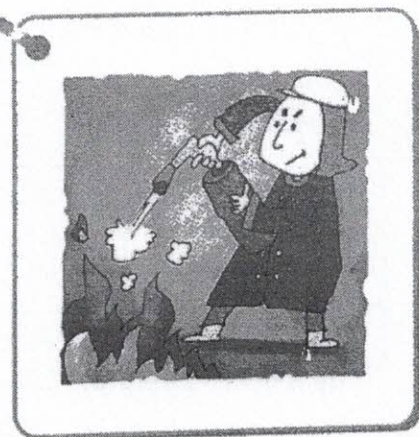
⇨ ()



날기 예보에서 내일은 비
가 온다고 합니다.



월요일에는 애국 조화를
합니다.



불이 나면 소화기로 불을
끄니다.



날이 너무 더워서 냉수를
마셨습니다.

순서대로
알아봅시다

日

月

火

水

3. 그림에 맞는 한자를 찾아 이어 붙시다.

(1)



아버지



(2)



어머니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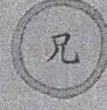
형



(4)



아우



4. **보기**에 있는 한자를 요일 순서대로 써 붙시다.



土 金 水 火 月

日 - () - () - () - 木 - () - ()

5. 밑줄 친 부분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한자는 어느 것입니까?

(1) 4월 5일은 식물일입니다.

(2) 창민이는 목요일마다 수영장에 갑니다.

(3) 나무를 다루어 집을 짓거나 기구를 만드는 사람을 목수라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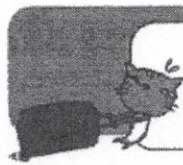
① 水

② 火

③ 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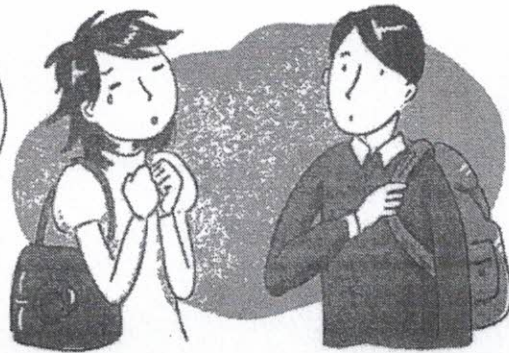
④ 山

⑤ 月



대화

난 그 영화를
벌써 두 번이나
봤는데 볼 때마다
가슴이 찡했어.



그래? 그렇게 감동적
이니? 어떤 내용인지
정말 궁금해.

지 영: 민수야! 시간이 있으면 같이 영화나 한 편 보자.

민 수: 좋아. 우리 '태극기 휘날리며' 라는 영화를 보는 게 어때?
참 감동적인 영화라고 들었어.

지 영: 난 그 영화 벌써 두 번이나 봤는데 볼 때마다 가슴이 찡했어.

민 수: 어떤 내용인지 정말 궁금해.

지 영: 한국전쟁을 배경으로 한 형제의 이야기인데 동생을 구하기 위해 형이
죽는 장면은 가슴 찡했어.

민 수: 그 영화를 빨리 봤으면 좋겠다. 나랑 한 번 더 보면 어때?

지 영: 뭐라고?

* 가슴(이) 찡하다: 감동하다

활용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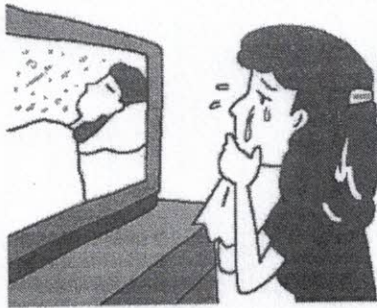
- ▶ 외국에서 '아리랑' 을 들으면 가슴이 찡해져요.
- ▶ 30년 만에 어머니를 만난 딸의 이야기를 듣고 정말 가슴이 찡했어요.
- ▶ 가: 어제 그 드라마 봤어? 주인공의 사랑 고백은 감동적이었어.
- 나: 맞아. 나도 그거 보고 가슴이 찡했어.

새 어휘와 문형

- | | | | | | | |
|------------------------------|------------------------------|------------------------------|------------------------------|-------------------------------|-----------------------------|-----------------------------------|
| <input type="checkbox"/> 편 | <input type="checkbox"/> 감동적 | <input type="checkbox"/> 찡하다 | <input type="checkbox"/> 내용 | <input type="checkbox"/> 궁금하다 | <input type="checkbox"/> 전쟁 | <input type="checkbox"/> 배경 |
| <input type="checkbox"/> 구하다 | <input type="checkbox"/> 장면 | <input type="checkbox"/> 만에 | <input type="checkbox"/> 드라마 | <input type="checkbox"/> 주인공 | <input type="checkbox"/> 고백 | <input type="checkbox"/> -기 위해(서) |

함께해요

다음은 민지가 생각하는 가슴이 찡한 영화들이에요. 영화 포스터를 보면서 이 영화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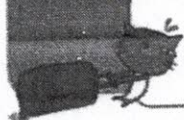


이 영화의 제목과
감독은...?
이 영화에 나오는 배우는...?
이 영화의 줄거리는...?
이 영화의 명장면은...?
정말 가슴이 찡한
영화들이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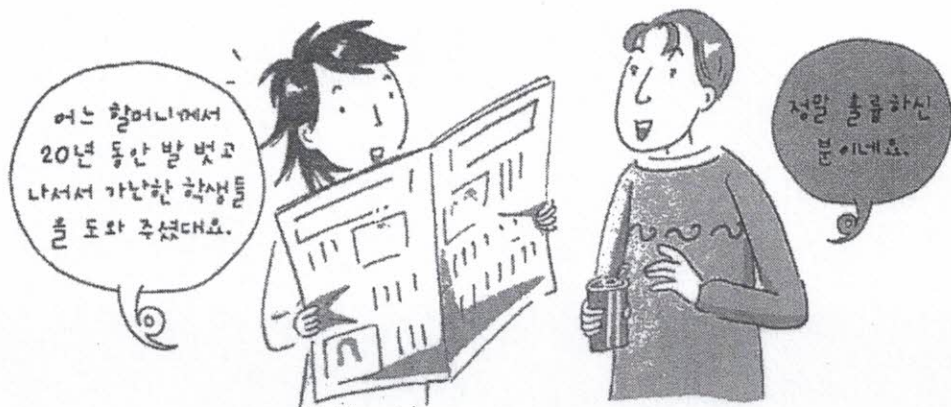
여러분이 본 영화 중에서 가슴이 찡한 영화는 무슨 영화였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한 걸음 더

- ▶ 코끝이 찡하다(=) 고향에서 온 어머니의 편지를 읽고 코끝이 찡해졌어요.
- ▶ 가슴(이) 아프다(ㄴ) 슬프거나 안타깝다
병원에 누워 있는 친구를 보니 가슴이 너무 아팠다.
- ▶ 찡하다㉸ • 그 소설책을 읽고 찡한 감동을 받았다.



대화



어느 할머니께서
20년 동안 발 벗고
나서서 가난한 학생들을
도와 주셨대요.

정말 훌륭하신
분이네요.

지 영: 에릭 씨, 이 신문 기사 좀 보세요.

에 릭: 어디요? 재미있는 기사라도 있어요?

지 영: 아뇨, 가슴 따뜻한 얘기가 있어서요. 어느 할머니께서 20년 동안
발 벗고 나서서 가난한 학생들을 도와주셨대요.

에 릭: 그렇군요. 힘들게 번 돈을 장학금으로 내셨다니 정말 훌륭하신 분이네요.

지 영: 네, 맞아요. 요즘 같은 세상에 쉽지 않은 일이에요.

에 릭: 우리도 이 할머니처럼 어려운 친구가 있으면 발 벗고 나서서 도와주기로 해요.

※ 발(을) 벗고 나서다: 어떤 일을 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다

활용예문

- ▶ 민수는 어떤 어려운 일에도 발 벗고 나선다.
- ▶ 많은 사람들이 홍수로 피해가 큰 지역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 ▶ 가: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좋을까?
- 나: 국민을 위해 발 벗고 나서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어.

새 어휘와 문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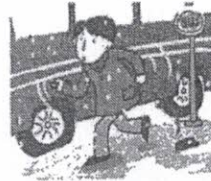
- | | | | | | | |
|---------|-------|--------|------|--------|------|------|
| □ 신문 기사 | □ 나서다 | □ 가난하다 | □ 벌다 | □ 훌륭하다 | □ 세상 | □ 홍수 |
| □ 피해 | □ 지역 | □ 대통령 | □ 국민 | □ -다니 | | |

함께해요



그림을 보고 친구와 같이 이야기해 보세요.

첫눈이 오는 날 승우는 여자 친구와 멋진 데이트를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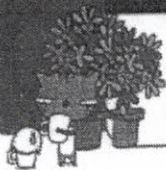


여러분에게도 승우와 같은 상황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발 벗고 나서서 할머니를 도와 드릴 거예요? 아니면 여자 친구와의 약속을 지킬 거예요?

한 걸음 더

- ▶ 팔(을) 걷고 나서다(=) 모든 주민들이 팔 걷고 나서서 어려운 이웃을 돕고 있다.
- ▶ 팔짱만 끼고 있다(↔) 팔짱만 끼고 있지 말고 같이 문제를 해결하자.
- ▶ 나서다
 - 여행을 마치고 공항을 나섰어요.
 - 그 일에는 별로 나서고 싶지 않아요.

11_ 가슴(이) 찡하다 12_ 발(을) 벗고 나서다



연습해요



보기의 관용어를 넣어서 대화를 만들어 보세요.

보기

가슴이 찡하다 가슴이 아프다 발을 벗고 나서다 팔짱만 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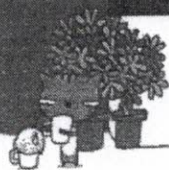
- 1 가: 친구가 많이 다쳐서 _____
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곧 나을 거예요.
- 2 가: 요즘은 다른 사람의 일에 _____ 도와주려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나: 맞아요. 모두 자기 일이 바쁘니까요.
- 3 가: 뉴스에서 들었는데 지하철 사고가 나서 많은 사람들이 다쳤대요.
나: _____ 소식이네요.
- 4 가: _____ 멜로 영화 한 편 소개해 주세요.
나: 글썄요. 저는 멜로 영화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어요.
- 5 가: 그 영화배우는 _____ 눈물 연기를 정말 잘해요.
나: 그래서 에릭 씨가 그 배우를 아주 좋아하는군요.
- 6 가: 모두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너 혼자 _____ 고 있을 거야?
나: 알았어. 지금 할 거야.



여러분이 대화문을 만들어 보세요.

가: _____

나: _____



이야기해요

가슴(이) 찡하다 / 발(을) 벗고 나서다



다음을 읽고 대화를 만들어 보세요.

왕방: 승우 씨가 병원에 입원했다고 해요.

제니: 네? 어디가 아픈데요?

왕방: 며칠 전에 태풍으로 집을 잃은 사람들 발 벗고 나서서 도와주다가 팔을 다쳤대요.

제니: 어머, 승우 씨에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왕방: 게다가 감기도 심하게 걸려서 밥도 잘 못 먹는다고 해요.

제니: 자신도 힘든데 늘 남을 위해 봉사하는 승우 씨를 보면 가슴이 찡해요.

왕방: 이따가 병원에 가 봐야겠어요. 제니 씨도 같이 갈 거지요?

제니: 그럼요.

왕방: _____

제니: _____



질문에 대답하세요.

- 1 승우는 왜 병원에 입원했어요?
- 2 제니가 가슴이 찡한 이유는 뭐예요?
- 3 여러분은 어떤 일에 발 벗고 나서 본 적이 있어요?

새 어휘

☐ 입원하다☐ 태풍☐ 잃다☐ 심하다☐ 봉사하다

왜 동의보감을 천하의 보배라고 할까?

동의보감

허준은 젊은 나이에 이미 스승을 능가할 만큼 유능한 의사가 되어 내의원(왕실의원)의 의관으로 일을 했어요. 젊은 의관 허준은 내의원
에서 많은 책을 읽고 연구했지요. 그리고 마침내 선조의 신임을 얻어
임금의 주치의가 됐어요. 천연두에 걸려 살 기망이

전혀 없는 왕세자의 병을 고친 뒤부터는 선조
의 신임은 더욱 두터워졌지요.

허준은 선조 임금의 명으로 지금까지도 명저
중의 명저로 꼽히는 《동의보감》이라는 책을
쓰기 시작했어요. 《동의보감》이 거의 완성될
무렵 병을 앓아 오던 선조가 죽고 광해군이 왕
위에 올라요. 이 때 간신들이 선조의 죽음이
허준의 탓이라고 모함을 하는 바람에 허준은

귀양을 떠나게 돼요. 하지만 허준은 귀양살이를 하면서도 계속 《동의
보감》을 썼어요.

광해군은 허준의 그동안의 공을 높이 사 허준을 다시 궁으로 들어
오게 했어요. 허준은 광해군 2년인 1610년 8월 6일, 무려 15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써 온 《동의보감》을 마침내 완성하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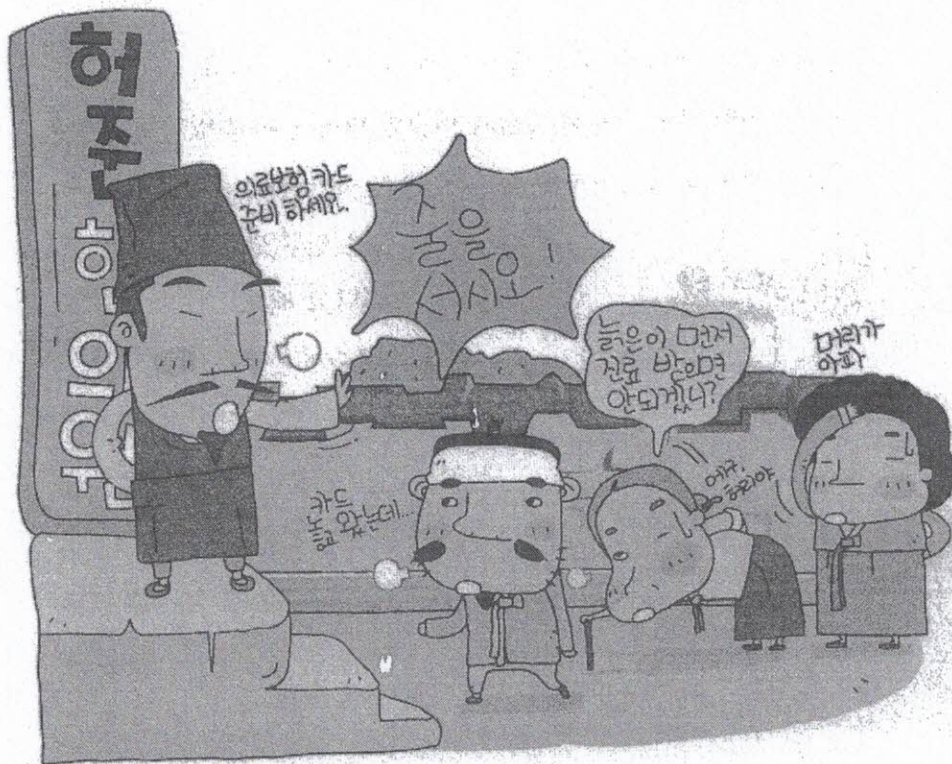
허준의 《동의보감》이 책으로 나오고 거의 400년이 흘렀지만 지금





도 한의학에서는 《동의보감》을 참고한다고 해요. 지금처럼 의학이 발달한 시대에도 《동의보감》을 참고한다고 하니 이 책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겠지요?

《동의보감》은 우리나라에만 알려진 책이 아니에요. 중국에서는 《동의보감》을 가리켜 '천하의 보배'라고 했고, 일본에서는 '의사들에게 가장 필요한 보물'이라고 했어요. 더군다나 최근에는 영어로도 소개되어 서양 사람들도 많이 읽고 있다고 해요. 허준이 남긴 《동의보감》의 목판본은 현재 한독 역사박물관에 남아 있습니다.



결혼한 사람도 서당을 다녔다고요?

서당

서당은 옛날 아이들이 공부하는 곳이에요. 이곳에서 기초를 닦은 아이들은 서원이나 향교로 가서 좀더 깊이 공부를 하게 되지요. 서원이나 향교에서 공부를 다 마치면 성균관에 가서 공부를 해요.

서당에서 처음 배우는 책은 《천자문》이었어요. 천자문을 통해 기본적인 한자 읽는 법과 뜻을 배웠지요. 그리고 나서 《동몽선습》이나 《명심보감》 등을 배웠어요. 그 다음으로는 《소학》, 《통감》 등을 배웠고, 마지막으로 《논어》, 《맹자》, 《중용》 등의 사서삼경을 배웠어요.



★책거리잔치

서당에서는 책을 한 권 다 떤다면 학문을 가르쳐 준 스승에게 감사하고 함께 공부한 친구들에게 한 톨한다는 뜻으로 책거리를 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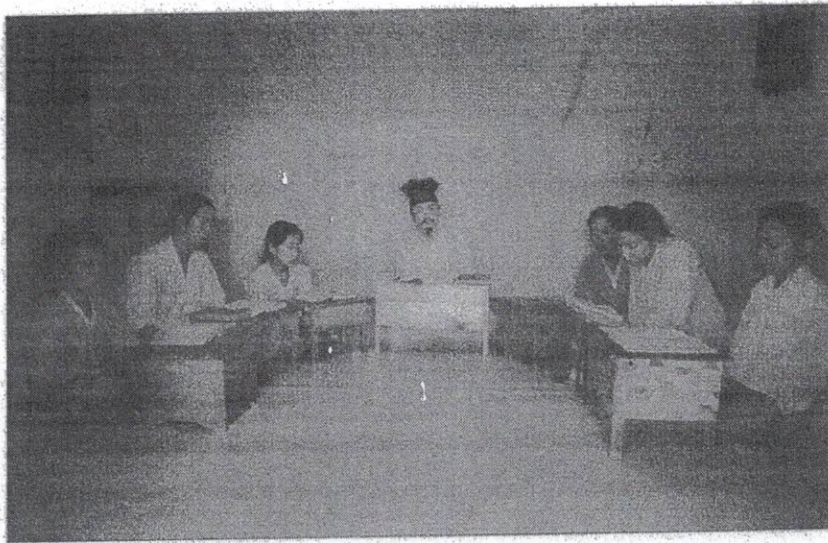
책거리를 하는 날이면 학부오들은 송편, 국수 등 음식을 장만하여 훈장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이 중에서 송편은 바트리지 않고 준비했다고요. 그 이유는 송편이 지혜를 상징하는 음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을 한 사람도 있었다고 해요.

김홍도의 서당도를 보면 다른 아이들은 다 땀기를 땀아 내렸는데 한 사람만 상투를 틀어 올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처럼 옛날 서당에서는 다양한 나이의 아이들이 함께 공부를 했어요.

서당은 나라에서 세운 학교가



아니라 개인이나 마을에서 세운 교육시설이에요.

서당에는 훈장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있었어

요. 훈장 선생님이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 직접 서당을 여는 경우도 있

었고, 마을 사람들이 마을

에서 가장 학식이 뛰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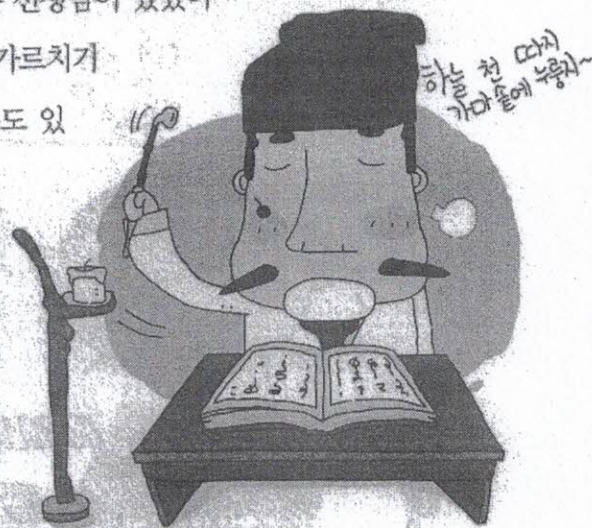
난 사람을 훈장 선생님이

로 모시기도 했어요. 학부

모들은 돈 대신 훈장과 그

의 가족이 먹고 살 수 있는

곡식을 학비로 냈답니다.



한석봉의 어머니는 왜 불을 끄고 가래떡을 썰었을까?

한석봉과 어머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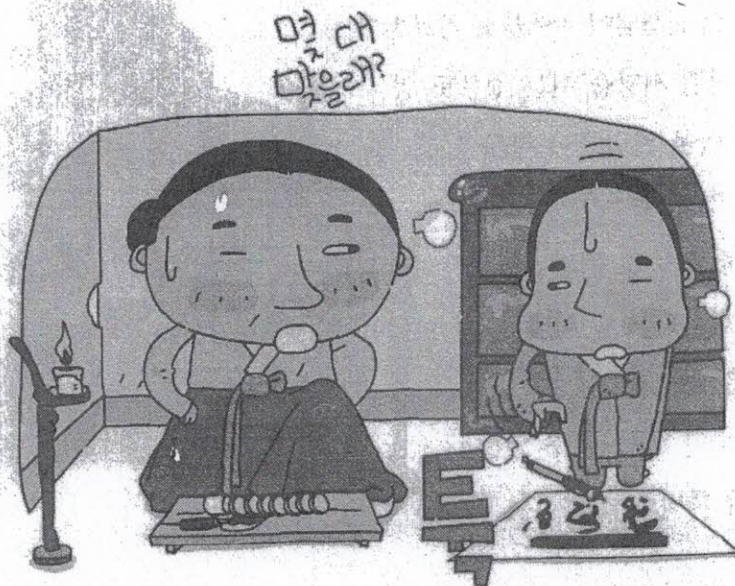
“얘야, 10년 동안 절에 들어가 공부를 하거라.”

한석봉의 어머니는 아들을 깊은 절로 보내 붓글씨 공부를 하도록 했어요. 한석봉은 밤낮으로 붓글씨 공부를 열심히 했지요. 얼마 후 주위 사람들은 그의 글씨를 보고 감탄을 했어요.

한석봉은 어머니에게 그동안 공부한 붓글씨 솜씨를 자랑하고 싶어 절에서 내려와 집으로 향했어요. 아들을 본 어머니는 버럭 화부터 냈어요.

“10년 동안 공부를 하라고 했거늘 어찌된 일이나?”

한석봉은 어깨를 으쓱거리며 이제 더 이상 공부할 필요가 없다고 말





했어요. 그러자 어머니는 아들에게 종이를 주고 호롱불을 꺼버렸어요.

“진정한 명필은 어둠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글씨를 쓸 수 있어야 한다.”

한석봉은 조금 당황했지만 마음을 진정시키고 글씨를 한 자 한 자 써 내려갔어요. 어머니는 그 옆에서 가래떡을 썰었지요.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그의 글씨는 도무지 글씨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엉망이었어요. 그러나 어머니가 썬 가래떡은 한결같은 모양으로 도마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지요.

그는 어머니에게 용서를 구하고 한 걸음에 다시 절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10년 동안 더 열심히 공부를 하여 조선 최고의 명필이 되었습니다.

한석봉은 1543년 개성의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어렸을 때는 종이 살 돈이 없어서 들이나 도자기에다 붓글씨 연습을 했대요. 그의 어머니는 아들을 공부시키기 위해 온갖 고생을 마다하지 않았고요.

어머니의 이런 희생 덕분에 한석봉은 과거에 급제하여 사자관(글씨와 책을 쓰는 벼슬)이라는 벼슬에 올랐어요. 선조 임금은 그의 글씨를 늘 벽에 걸어 두고 보면서 “하늘과 땅과 석봉의 글씨가 조화를 이룬다.”라고 칭찬을 했다고 해요.

한석봉은 김정희와 함께 조선 시대 2대 명필로 꼽혀요. 현재 전해지는 그의 글씨로는 고양의 ‘행주대첩 승전비’, 개성의 ‘선죽교비’, 과천의 ‘허엽 신도비’ 등이 있습니다.

2018년 10월 20일

한라반 쪽지시험

이름 :

▶ 다음 질문을 읽고 답하세요.

1.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는 고려의 수도였던 개경을 버리고 이곳을 새로운 수도로 삼았다. 이곳의 현재 이름과 조선시대의 이름은?

2. 땅의 생김새나 방위가 사람들의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이 사상은 무엇인가요?

3. 한글의 자음과 모음을 모두 써 보세요.

자음 :

모음 :

4. 한글의 자음은 무엇을 본떠 만들었나요?

5. 한글의 모음은 무엇을 본떠 만들었는지 연결하세요.

.	땅
ㅣ	사람
ㅡ	하늘

6. 세종 대왕이 한글을 처음 만들었을 때, 한글의 이름은 무엇이었나요?

7. (6번의 답)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8. '한글'이라는 이름은 누가 붙인 이름인가요?

9. 조선 시대 태조부터 순조까지 519년 동안의 조선의 정치, 사회, 경제, 문학, 군사, 외교 등 거의 모든 분야에 대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이 책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10. 임금 곁에 있으면서 있었던 일들을 매일 적는 사람을 무엇이라고 부르나요?

2018년 10월 20일

한라반 쪽지시험

이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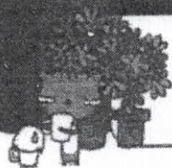
▶문장을 읽고 아래의 단어들을 이용해 문장을 만드세요.

신약 개발, 섭취, 부작용, 보급, 검증, 증명

1. 그는 암 치료 ()을 위해 젊음을 내던졌다.
2. 그 약을 복용했더니 ()으로 온몸에 반점이 생겼다.
3. 컴퓨터가 대중적으로 ()되다.
4. 내가 한 말이 모두 사실이라는 것을 ()할 수 있어요.
5. 그 이론은 ()을 거치지 않은 것이므로 신뢰할 수 없다.
6. 음식을 골고루 ()하는 것이 건강에 좋다.

신체구조, 생체 실험, 명목, 허용, 위협, 대처, 치명적인

7. 공장의 화재는 그에게 () 손실을 입혔다.
8. 이 건물에서는 흡연이 ()되지 않는다.
9. 핵무기는 인류의 안전에 큰 ()이 아닐 수 없다.
10. 일순간의 일이라 미처 ()하지 못했다.
11. 회사는 인원 정리라는 ()으로 많은 사원을 해고했다.
12. ()에는 주로 쥐나 토끼가 이용된다.
13. 인간의 ()는 복잡하고 정교한 ()로 되어 있다.



연습해요



보기의 관용어를 넣어서 대화를 만들어 보세요.

보기

한잔을 하다

잔을 올리다

한턱을 내다

- 1 가: 민수 씨, 이번에 시험을 잘 보면 _____.
나: 네, 알겠어요. 기대하세요.
- 2 가: 교수님, 제가 _____.
나: 그래. 한 해 동안 고생 많았어.
- 3 가: 오늘 제 생일인데 같이 저녁 먹을까요?
나: 좋아요. 수진 씨가 _____, 그럼 저는 영화를 보여 줄
게요.
- 4 가: 오랜만에 만났는데 _____.
나: 좋아요. 그런데 맥주를 마실까요? 소주를 마실까요?
- 5 가: 어제 저녁에 전화도 안 받고 어디에서 뭐 했어요?
나: 기분이 안 좋아서 친구들과 _____고 있었어요.



여러분이 대화문을 만들어 보세요.

가: _____

나: _____



「국어」에서 공부한 내용을 생각하며 「양초 도깨비」를 읽어 봅시다.

양초 도깨비

방정환

한 시골 양반이 서울 구경을 갔다가 불만 갖다 대면 온 방 안이 환하게 밝아지는 양초를 처음 보았습니다. 어찌나 신기하던지 양초를 많이 사 가지고 시골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서울 구경 이야기를 자랑삼아 하고, 서울에 다녀온 기념으로 그 양초를 세 자루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 처음 보는 물건을 받기는 받았어도 무엇에 쓰는 것인지 알지 못하여 펍 갑갑해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다 준 사람에게 새삼스럽게 물어보기는 쑥스러워 저희끼리만 이 집 저 집 찾아다니면서 알아보았지만, 한 사람도 그 하얗고 가늘고 길쭉한 것이 무엇에 사용하는 것인지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다 하다 못하여 젊은 상투쟁이 다섯 사람이 그것을 손에 들고 동네에서 아는 것 많기로 유명한 서당 훈장한테 물어보러 갔습니다.

“훈장님, 이번에 송 서방이 서울에서 이런 것을 사 가지고 와서, 서울에 다녀온 기념이라고 집집마다 세 개씩 나누어 주었는데, 훈장님 댁에도 이런 것을 가져왔습니까?”

“응, 가져오고말고. 우리 집에는 아홉 개나 가져왔다네.”

“훈장님께서는 특별히 많이 가져왔군요. 그런데 저희는 이것이 무엇인지, 어디에 쓰는 것인지 알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여쭙어 보러 왔습니다.”

“그까짓 것도 모른단 말인가? 에이!”

“제발 좀 가르쳐 주십시오.”

“아무리 무식한 사람이기로 그것을 모른단 말인가? 그것은 국 끓여 먹는 것이라네. 서울 사람들은 그것으로 국을 끓여 먹는다네.”

● 젊은 상투쟁이 다섯 사람이 양초를 들고 훈장한테 간 까닭은 무엇인가요?

● 낱말 학습

◆ 상투쟁이

상투를 튼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

◆ 서방

벼슬이 없는 사람의 성 뒤에 붙여 이르는 말.



“허허, 이것으로 국을 끓여요? 맛이 있을까요?”

“맛이 있고말고. 맛이 없으면 서울 사람들이 먹을 리가 있겠나? 맛 좋고 몸에 좋고, 아주 훌륭한 것이라네.”

“대체 이것이 무엇인데, 그렇게 맛이 좋고 몸에 이롭습니까?”

“뱅어라고, 생선을 잡아 말린 것이야.”

“이상한 생선도 다 있습니다. 눈도 없고, 이 앞에 요 뽕족한 것은 무엇입니까?”

“눈이 원래 없는 생선이야. 그래서 더욱 귀한 것이라네. 그 뽕족한 것은 주둥이가 아니고 무언가?”

“네에, 네, 알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 참말 생선 말린 것 같군요. 정말 서울 사람들은 별 생선을 다 먹는군요.”

“그러기에 서울이 좋다는 게 아닌가?”

“그래, 이것으로 국을 어떻게 끓입니까?”

“허허, 무식한 사람이라 갑갑도 하군. 물을 끓이고 이것을 칼로 큼직하게 썰어 넣고 간을 쳐서 먹으면 되지 않나?”

“이게 그렇게 맛이 있을까요?”

● 양초의 모양을 보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맛이 있고 말고. 자, 이왕이면 오늘 우리 집에서 끓여 먹어 보고 가게.”
 훈장이 애초에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였으면 좋았을 것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잘 아는 체하고, 집안 사람을 불러서 물을 끓이고 간
 장을 치고 파를 썰어 넣게 하였습니다. 잠시 뒤, 양초를 얹게 썰어 넣고
 펄펄 끓여 만든 국 여섯 그릇이 나왔습니다.

“자, 먹어 보게. 맛만 봐도 반할 것이니.”

“글쎄올시다. 이렇게 좋은 음식을 먹으면 속이 놀라겠는데요.”

“잔말 말고 어서 먹어 보게. 나는 작년에 서울 갔을 때 먹어 보고 올
 해는 처음 먹네.”

그런데 다섯 상투쟁이가 그것을 먹으려고 보니까 하얗게 변쩍변쩍
 하는 기름이 둥둥 떠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상한 기름이 뜨는데, 이게 무엇입니까?”

“아마, 그 사람들, 시골 사람들이라 무식한 소리만 하는구나. 좋은
 국일수록 기름이 많은 법이야. 쇠고깃국도 잘 끓이면 기름이 많지 않



날말 학습

◆ 애초

맨 처음.

㉠ 그 일은 애초부터 불가
 능한 것이었다.

◆ 잔말

아무 쓸데없이 자질구레
 하게 늘어놓는 말.

던가? 땀국도 기름이 많아서 먹으면 살찌는 것이라네. 내가 아까부터 몸에 좋은 것이라고 하지 않았는가?”

또 뭐라고 하면 시골 사람이라고 편잔을 들을까 보아, 냄새가 나는 것도 억지로 참으면서 먹었습니다. 먹고 보니 목구멍이 매캐하고 쓰라렸습니다. 그래서 참다못하여 한 사람이 말하였습니다.

“아이고, 서울 음식은 모두 이렇게 목구멍이 아픈니까? 아파 죽겠습니다.”

그러자 훈장은

“허허, 양반의 음식이 들어가니까 그렇지. 잠자코 먹게그려.”

하고 편잔을 주었습니다.

여러 사람은 그만 말도 못 하고 목이 아파서 입을 벌리고 씹씹거리며 앉아 있었습니다. 훈장은 다른 사람보다도 더 목구멍이 아팠지만, 남부끄러워 입도 못 벌리고 찹찹매고 있었습니다.

마침 그때, 서울 가서 양초를 사 온 송 서방이 훈장 집에 왔습니다. 다섯 상투쟁이는 하도 반가워서 송 서방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아이고, 마침 잘 왔네. 자네가 그때 가져다준 땀으로 오늘 국을 끓여 먹었더니 목이 아파서 죽겠네. 그걸 먹으면 원래 이렇게 아픈가?”
송 서방이 깜짝 놀라 눈이 휘둥그레져서 걱정스러운 듯이 말하였습니다.

“그것을 먹다니? 그건 먹는 것이 아닌데…….”

다섯 상투쟁이는 그것이 먹는 것이 아니라는 말을 듣고

“아이고머니, 큰일 났네. 못 먹는 것을 서울 음식이라는 바람에 먹었네그려.”

하고 야단들이었습니다.

“누가 그런 어리석은 소리를 하였던 말인가?”

“누구는 누구야? 저 훈장님이 이래라저래라 하면서 그걸로 국을 끓이게 하였지.”

훈장은 얼굴이 홍당무같이 빨개져서 방바닥만 내려다보고 앉아 있었습니다.

● 다섯 상투쟁이가 냄새가 나는 것도 억지로 참으면서 양초를 끓인 국을 먹은 까닭은 무엇인가요?

● 훈장이 얼굴이 홍당무같이 빨개져서 방바닥만 내려다보고 앉아 있었던 까닭은 무엇일까요?

날말 학습

◆ 편잔

맞대어 놓고 언짢게 꾸짖거나 비꼬아 꾸짖음.

● 편잔을 듣기 싫어서 열심히 공부하였다.



“그것은 뱅어가 아니라 불을 켜는 양초라오. 자, 불을 켜 테니 잘 보시오.”

송 서방이 생선 주둥이라던 심지에 불을 붙이니, 온 방 안이 환해졌습니다. 이것을 보고 사람들은 ‘불을 먹었구나.’ 하는 생각에 어쩔 줄 몰라 하였습니다. 우리 배 속에도 저렇게 불이 켜질 테니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배 속에 금방 불이라도 일어나는 것처럼 모두 떨떨 뛰었습니다.

“아이고머니, 불이야!”

“아이고머니, 배가 타면 어쩌나!”

그 가운데에서도 얼굴이 새빨개져서 고개를 푹 수그리고 앉아 있던 훈장은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겁이 났습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자기 배 속에 불씨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마음이 조급해진 훈장은 자기도 모르게 고함을 질렀습니다.

“배 속에서 불이 일어나기 전에 물속으로 뛰어들어 가세.”

그러고는 제일 앞장서서 뛰어나가 마을 뒤 냇물에 뛰어 들었습니다. 그러자 모두 물속으로 푹푹 들어가서 머리만 내놓고 불이 안 나도록 몸을 물속에 잠그고 있었습니다.

달이 환하게 밝은 밤, 마침 지나가는 나그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냇가를 혼자 지나가기가 겁이 나는데, 냇물 위에서 왁자지껄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깜짝 놀라 자세히 보니까 냇물에 사람의 머리만 수박같이 둥둥 떠 있었습니다.

“웁지, 저놈들이 도깨비로구나. 도깨비는 담뱃불을 무서워한다더라.”

하고 부리나케 담배를 담아 물고 불을 붙였습니다. 훈장과 상투쟁이들

은 배 속에 있는 양초에 불이 일어나지 않도록 물속에 있는 편인데, 나그네가 불을 붙이니까 겁이 나서 소리쳤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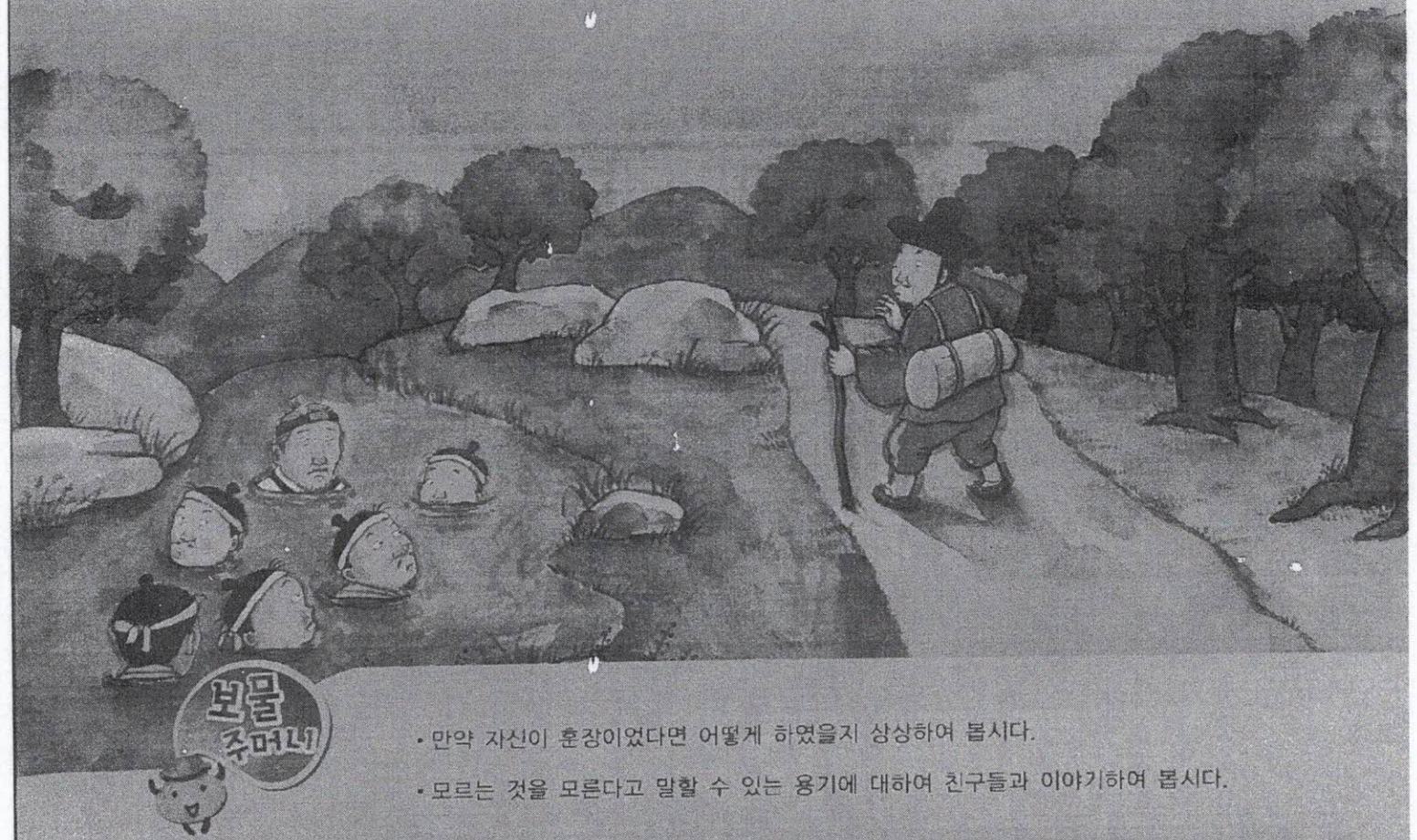
“어보게, 저놈아 우리 배 속에 있는 양초에다 불을 붙이려고 하니 모두 머리까지 물속에 잠그세.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나겠네.”

그러고는 모두 얼굴과 머리까지 물속으로 잠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나그네는 그런 줄도 모르고 냇물 위의 수박 같은 도깨비 머리가 사라진 것을 보고

“정말 도깨비란 놈들은 담뱃불을 어지간히 무서워하는군.”
하고 중얼거리고는 지나가 버렸습니다.

● 나그네가 지나간 뒤에 훈장과 상투쟁이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 훈장은 양초를 어디에 쓰는 것인지 모른다고 왜 처음부터 말하지 못하였을까요?



• 만약 자신이 훈장이었다면 어떻게 하였을지 상상하여 봅시다.

•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에 대하여 친구들과 이야기하여 봅시다.

문제

1~3 다음 ()에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1. 피곤해서 일이 끝나면 ()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
 ① 별로 ② 바로 ③ 거의 ④ 마치
2. 내일 사장님 앞에서 발표할 자료를 며칠 밤을 새워 () 완성했다.
 ① 잠시 ② 아직 ③ 괜히 ④ 겨우
3. 부모님께서 반대하실 줄 알았는데 () 쉽게 허락해 주셨다.
 ① 뜻밖에 ② 저절로 ③ 좀처럼 ④ 제대로

4~6 다음 밑줄 친 부분과 의미가 비슷한 것을 고르십시오.

4. 아무리 설명을 들어도 이 문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① 잠시 ② 미리 ③ 무조건 ④ 도대체
5. 어디로 여행갈 것인지는 우선 시험이 끝나고 나서 생각하기로 했다.
 ① 거의 ② 먼저 ③ 벌써 ④ 마치
6. 7년의 연애 끝에 드디어 꿈에 그리던 결혼을 하게 되었다.
 ① 오히려 ② 마침내 ③ 일부러 ④ 반드시

7 다음 밑줄 친 부분과 의미가 반대인 것을 고르십시오.

7. 서둘러서 약속 장소로 달려갔지만 일행들은 이미 떠난 후였다.
 ① 금방 ② 아직 ③ 마침 ④ 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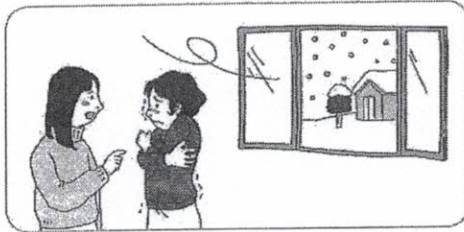
8 다음 밑줄 친 부분이 틀린 것을 고르십시오.

8. ① 두 사람은 마치 쌍둥이처럼 생김새가 닮았다.
 ② 서둘러 준비하는 걸 보니 방금 학교에 갈 것 같다.
 ③ 이 구두는 값도 비싸고 발도 불편한데 괜히 샀다.
 ④ 말다툼을 한 이후로는 그와 연락을 거의 안 한다.

연습

1~3 다음 그림을 보고 피동사를 이용해서 대화를 완성하십시오.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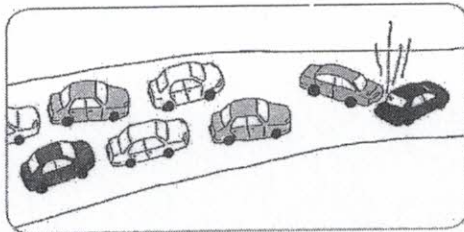


⇒

가: 왜 이렇게 춥지요?

나: 창문이 _____ 그래요.
제가 닫을게요.

2.



⇒

가: 왜 이렇게 늦었어요?

나: 교통사고가 나서 길이 _____
늦었어요.

3.



⇒

가: 동생이 왜 울어요?

나: 동생이 형에게 과자를 _____
울어요.

4~6 제시된 문법을 이용해서 문장을 완성하십시오.

‘-(이)아말로’

4. 김 과장 / 이번 일을 맡기기에 적당한 사람이다

⇒

‘-고 말다’

5. 열심히 공부하다 / 시험에 떨어지다

⇒

'-자마자'

6. 버스에서 내리다 / 비가 오다

⇒

7~10 다음 <보기>의 문법을 이용해서 문장을 완성하십시오.

보기 -(이)야말로 -고 말다 -자마자 -아/어 내다

7. 어제는 너무 피곤해서 집에 _____ 바로 잠이 들었어요. (들아오다)
8. 늦잠을 자는 바람에 기차를 _____ . (놓치다)
9. _____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관광지라고 할 수 있어요. (제주도)
10. 유학 생활이 결코 쉽지는 않았지만 모두 _____ 졸업했습니다. (이기다)

11~14 다음 <보기>의 어휘를 알맞게 바꿔서 문장을 완성하십시오.

보기 뽑다 물다 굶다 밀다

11. 지하철에서 사람들에게 _____ 넘어졌어요.
12. 친구와 통화하던 중 갑자기 전화가 _____ .
13. 마침내 그 분이 대통령으로 _____ .
14. 강아지한테 손을 _____ .

15~17 다음 <보기>에서 알맞은 말을 골라 '-아/어/여지다'를 이용해서 대화를 완성하십시오.

보기 쓰다 지우다 밝히다

15. 이 펜은 글씨가 참 잘 _____

16. 김치는 암 예방에 좋은 것으로 이미 _____

17. 친구 전화번호를 손에 적었는데 땀 때문에 금방 _____

18~20 밑줄 친 부분이 맞으면 ○, 틀리면 × 하십시오.

18. 밖에 나오는 대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

19. 학교에 오자 공부해라. ()

20.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일을 시작했어요. ()

문제1

1~6 다음 ()에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1. 늦잠을 자는 바람에 중요한 회의에 ().

① 늦는 법이에요 ② 늦을 뿐이에요
③ 늦고 말았어요 ④ 늦기에 달렸어요

2. 가: 수연 씨, 혹시 제가 해 달라고 부탁한 자료 보냈어요?
나: 죄송해요. 깜빡했어요. 이따가 집에 () 바로 보내 줄게요.

① 들어가게 ② 들어가도
③ 들어가려면 ④ 들어가자마자

3. 가: 이 세탁기가 마음에 드는데 가격이 좀 비싸군요.
나: 그렇기는 하지만 이 () 손님이 원하시는 기능을 다 갖춘 것입니다.

① 세탁기보다 ② 세탁기만큼
③ 세탁기야말로 ④ 세탁기치고는

4. 가: 리포트는 다 썼어요?
나: 아니요, 어젯밤에 겨우 앞부분만 쓰다가 ().

① 잠이 든 셈이에요 ② 잠이 들 뻔 했어요
③ 잠이 들어 버렸어요 ④ 잠이 들어야 했어요

5. 가: 드디어 그 책 완결편이 곧 나온대요.
나: 네, 저도 들었어요. 책이 () 꼭 사 볼 거예요.

① 나오는 반면 ② 나오는 대로
③ 나오는 김에 ④ 나올 뿐만 아니라

←

1~5

- 1.

나:(). 벌써 부장님께 가져다 드렸어요.

- ③ 끝났나 봐요

- 2.

나 : 학교 앞에서 떡볶이를 샀는데 얼마나 (), 한번 드셔 보세요.

- ③ 맛있는 줄 알아요

- 3.

잘 못해서

- ### ③ 자곤 하면

- 4.

① 반납된 대신

- ③ 반납되는 대로

- 5.

① 이겨 냈기

- ### ③ 이길 만했기

